



## 인물탐방 한병함 코리아 크리스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 감동의 음률로 세상을 어루만지다

“기약 하는 사람들이 사흘을 연습 하지 않으면 이웃이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하루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압니다.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 하면 손에 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플루티스트이자 지휘자인 한병함(78·대전3동) 선생의 말이다.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한 선생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경지에達지 못한다며,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대 지휘자이며 울산시립교향악단 초대 지휘자 출신인 한 지휘자의 이력은 화려하다. 부산방송관현악단, 부산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하였고 한국음악협회, 경남기악분과위원장, 부산교협음악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경성대·동의대·부산신학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동경연주회, 대만 순회 연주회



평생을 음악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힘써온 한병함 지휘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 부산문화상을 받았다.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활동을 했다.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 부산문화상(공연예술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병함 선생은 1931년 함경남도

## 18년간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봉 잡아 부산원로교향악단 창단 음악열정 불태워

함흥에서 태어났다. 해방 직후 가족들과 함께 서울의 청량리 부근에 정착을 했다. 6·25와 보릿고개, 5·16 군사혁명 등 어려운 시절을 운명으로 겪으면서 그 무렵 부산의 암남동 산꼭대기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1962년 부산시향이 창단되자 부지휘자로 있으면서 10년 뒤 상임 지휘자가 된다. 1979년 18년 동안 몸담았던 시향을 그만두고 비엔나로 유학을 떠난다. 그 후 울산교향악단을 창단해 초대 단장이 된다. 그 시절의 어려웠던 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5년간 부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하면서 땀과 눈물로 부산과 대구에서 인원을 보충하기도 했다. 문화 불모지였던 울산에 음악의 향기가 넘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의 현재 직함은 코리아 크리스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및 총 음악감독이다.

1988년 창단 이후 30여회에 걸친 연주회를 가졌지만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잠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행히도 한 기업가가 후원을 약속해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7월7일에는 부산원로교향악단 창단 기념공연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음악 비수기업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의 관중이 열광하는 모습에 가능성을 보았다.

“원로”라는 명칭을 붙이기 부끄럽다고 한 지휘자는 말하지만 주 멤버

들이 부산시향 창립단원들부터 50~70대들이다. 30여 명 단원들의 평균 나이가 63세 정도이다.

그의 꿈은 ‘명품’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일이다. 부산에 시향을 제하고 서너 개 정도의 직업 오케스트라가 생기기를 희망한다. 부산시향의 정년은 57세. 기량이 절정일 때 직장을 잃게 된다. 연주자 한사람을 양성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게 한 지휘자의 마음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코리아 크리스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일이다. 음악의 생활화가 바로 그것이다. 꽃창기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듯 음악의 향기가 사막한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겨우 음악에 대해 조금 알만 한데 벌써 나이가 들어버려 안타깝다. 그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청신체계를 풍요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1주일에 한 번씩 진해 웅천의 기도원에 들려 피아노, 플루트 등으로 찬양사업을 하기도 하고 청송교도소, 해군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등에서도 연주를 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세월이 비껴간 듯 동년의 은발이 그의 음악세계 만큼이나 은은한 빛을 발한다.

한정미 명예기자

## 우리구 사람들

## 장애인 생계유지 프로그램 개발

남구장애인복지관 박 지 영 신임관장

남구장애인복지관 신임관장으로 취임한 박지영 관장은 취임일성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산대학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 관장은 지난 2004년(사)부산복지21 총봉사회 해운대구 회장을 맡으면서 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에도 여러차례 봉사활동을 벌이며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때 박 관장은 장애인 재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박 관장은 취임과 동시에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전문 프로그램 전반을 살펴보고 이용시설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이용재활시설에서 바우처 사업으로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복지관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언어치료, 소아물리치료 등의 우수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 관장은 가장 먼저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믿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장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실용주의 시대에 걸맞게 복지관도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는 대로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박 관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풍토를 하루 빨리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박 관장은 굳게 믿고 있다.

## 라켓들면 건강해져요

용호배드민턴클럽 최고령 전 용 씨

팔순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와 더불어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져 사는 이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용호1동 비룡산 체육공원 내 ‘용호배드민턴클럽(회장 김용백)’ 최고령자인 전 용(78·대전4동) 회원이다. 1931년 생으로 일흔여덟이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정당한 모습에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무색하다.

10여 년 전부터 무료함을 달랠고자 배드민턴을 시작했다는 그는 아침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체육공원에 도착한다. 가장 먼저 코트 주변을 정리하고 회원들이 마실 커피 물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놓는 자상함도 잊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바깥의 뒷밭에 여러 가지 화초와 식물들을 심고 가꾸어 친환경 만들기에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 신입회원들에게는 난타를 쳐주며 자상한 코치 역할을 톡톡히 하기에 인기 만점이다.

전씨는 5~6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 못지않은 움직임으로 노인직업을 과시했다. 당시 남구청장



배 배드민턴 경기대회에서 60대 이상 C급에 출전해 동메달을 두 번이나 딴 이력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무리한 운동보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목표를 바꾸었다.

배드민턴의 매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그는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코트에서 젊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배드민턴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노년층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여 건강을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정화 명예기자

## 독도는 형제의 나라 한국 땅

독도 다녀온 터키 유학생 부산외국어대학교 예 르 탄 씨

터키에서 유학 온 앙카라대학 한국어과 출신 예르탄(Ertan·25·부산외대 한국어과)씨는 지난 8.1~8.3일까지 부산민족학교 독도학당(회장·김희로)에서 주관한 ‘재부산 외국 유학생 독도순방단’ 단원으로 독도를 다녀왔다.

독도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지만 큰 섬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했다는 그는 “터키에 있을 때부터 독도에 관심이 많았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과 책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왜 그토록 이 섬을 두고 싸우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었고 어떤 심정이 궁금했다”고 한다.

예르탄씨는 이 체험을 통해서 “국제법상으로는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독도에 세워진 해경초소를 보면서 한국이 실용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한국 영토”라고 증언했다.

그는 “터키 역시 오스만 제국 때 그리스에 섬을 뺏긴 적이 있어서 한국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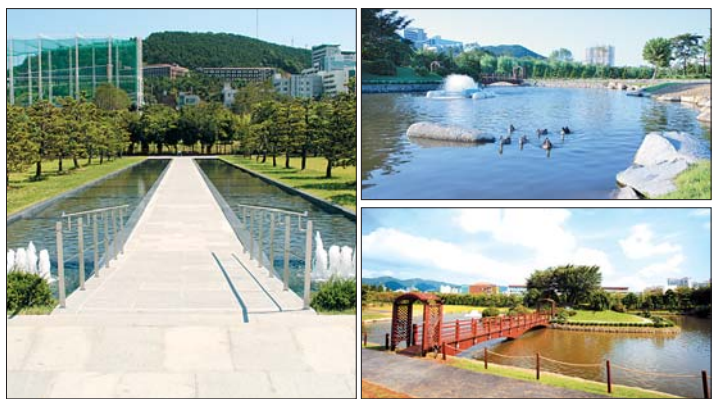


한다”며 “한국은 터키와 형제의 나라이므로 한국을 믿고 응원한다. 한국인을 좋아하는 터키인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예르탄씨는 독도 탐방을 마치고 와서 터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했다고 한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본국에 가면 가이드로서 터키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빌어본다. 공경자 명예기자

## News 세계서 하나 유엔기념공원 뉴스

## 남측 녹지지역 새단장



유엔기념공원이 유엔군위령탑 아래 녹지지역을 새롭게 단장해 참배객들을 맞고 있다.

공원측은 지난 5월부터 국비 6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연못을 정비하고 연못내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교체했다. 이와 더불어 유엔군위령탑 남측 방향 11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수로 ‘무명용사의 길’을 완공했다.

이번 공사로 부패도로 인해 오염되었던 연못은 갈대를 제거한 후 제모습을 찾았다. 지난 76년 태국정부의 도움으로 세워졌던 섬과 연결된 다리도 부산은행의 도움으로 새롭게 정비됐다.

이번에 준공된 무명용사의 길은 11이라는 숫자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 우선 11개의 물 계단, 수로 위쪽의 11개의 분수대, 수로 가에 늘어선 11그루의 소나무 이것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11개국을 의미한다.

또한 수로 위쪽의 분수대는 양쪽에 11개씩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기념공원 안장구 11개국 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한국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유엔의날 기념 추모음악회

UNMCK에서는 내달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추모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저녁 7시30분부터 한시간동안 열리며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회원국 10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해 400여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최용호의 지휘와 첼리스트 박경욱이 출연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게 된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2006년 강동식 바이올린 연주회와, 2007년 야간개방(유엔기념공원 건립이래 최초)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문화행사이다. 이는 수준 있는 문화 예술공연에 목말라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개방시간은 오후 9시까지이며, 불빛과 어우러진 유엔기념공원의 신비로운 모습과 추모음악이 유엔기념공원의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625-0625

## 10월 산행을 떠나요

구 분	산 약 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1동	산정산악회	11(토), 무박 2일	섬악산 대청봉	621-2455
대연2동	대이산악회	산행 일정 없음		019-445-0062
대연6동	연포산악회	12(일)	장소 미정	010-5108-4777
용당동	문화산악회	26(일)	속리산	016-564-8882
	용마산악회	산행 일정 없음		011-577-3046
	죽거문산악회	19(일)	장소 미정	011-851-6634
감만1동	홍곡산악회	산행 일정 없음		016-552-0266
	금로별산악회	19(일)	장소 미정	016-881-1192
감만2동	부룡산악회	11(토)	영덕 팔각산	016-840-7697
우왕2동	우왕산악회	26(일)	속리산	016-535-2746
문현2동	문현산악회	12(일)	미정	010-9533-0001
문현2동	문현2산악회	12(일)	밀양 제화산	016-570-0539
	문현산악회	산행 일정 없음		016-550-9395
문현3동	남부산악회	26(일)	주왕산 절골	010-9237-0220
	문토산악회	26(토)	백운산	011-569-1888
문현4동	문사산악회	12(일)	경북 의성 금성산	010-2549-4656

## 보상에 산다 용호동 분포복지회

## 참된 봉사 실천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 회원60여명 이웃돕기 앞장 지역가꾸기 사업 계속 추진

정기적인 봉사로 지역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단체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용호동 순수 봉사단체인 분포복지회는 지난 2005년 6월 창립한 이후 소년소녀가장들과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정성을 쏟고 있다. 봉사재원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납부로 마련된다.

분포복지회는 하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현재 60여명의 회원들이 봉사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이 용호동 지역 주민들로 누구보다 지역사회에 밝다. 그래서인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의 실



분포복지회는 지난 11일 용호1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 대연초등학교 2년 연속 수상

###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 조직위원장 상 받아

대연초등학교가 지난달에 열린 제3회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학교 6학년 10반 어린이들이 출품한 ‘발칙한 상상’과 ‘킹카 대 킹카’가 비키 구름스 미소상(조직위원장 상)과 마음의 별빛 상(경남남도 교육감상)을 동시에 받았다.

지난해 ‘짜지 바꾸는 날’로 부산시장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발칙한 상상’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뤘으며 ‘킹카 대 킹카’는 한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뤄 또래 어린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작품들은 반 친구들이 모두 참여해 팀을 나눠 기획에서부터 촬영, 연출, 연기까지 직접 맡았다. 그래서인지 두 작품에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 신선하게 그려져 있다.

출품을 위해 어린이들은 틈틈이 노력을 기울였다. 단기방학 때는 물론 토요일에도 모두 나와 촬영에 나섰다. 아이들의 영화 찍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 바로 담임이 맡고 있는 권영일씨가 아이들의 훌륭한 스폰서가 됐다.

아이들의 교육은 물론 편집과 같은 어려운 작업은 담임의 몫이었다.

평소 영화공부에 조예가 깊은 권영일 담임은 반 학생들에게 영상언어를 익혀주기 위해 출품을 마음먹었다.

이 학교 6학년 10반 어린이들이 출품한 ‘발칙한 상상’과 ‘킹카 대 킹카’가 비키 구름스 미소상(조직위원장 상)과 마음의 별빛 상(경남남도 교육감상)을 동시에 받았다.

지난해 ‘짜지 바꾸는 날’로 부산시장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발칙한 상상’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뤘으며 ‘킹카 대 킹카’는 한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뤄 또래 어린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작품들은 반 친구들이 모두 참여해 팀을 나눠 기획에서부터 촬영, 연출, 연기까지 직접 맡았다. 그래서인지 두 작품에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 신선하게 그려져 있다.

출품을 위해 어린이들은 틈틈이 노력을 기울였다. 단기방학 때는 물론 토요일에도 모두 나와 촬영에 나섰다. 아이들의 영화 찍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 바로 담임이 맡고 있는 권영일씨가 아이들의 훌륭한 스폰서가 됐다.

아이들의 교육은 물론 편집과 같은 어려운 작업은 담임의 몫이었다.

정수연 학생은 “평소 잡담 책을 읽던 친구들도, 혼자서 조용히 놀던 친구들도 하나가 되어 영화를 함께 만드는 동안 모두 친한 친구가 됐으며 늦게까지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힘들긴 했지만 친구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밝혔다.

박선준 학생은 “영화를 찍기 전에는 누가 주연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욕심도 났었는데, 영화를 찍을 때는 모두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류진아 명예기자



제3회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에서 조직위원장상과 경상남도 교육감상을 받은 대연초등학교 6학년 10반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